

## 外貌 關聯 強迫行動이 바디이미지에 미치는 影響

李承熹\* · 沈智淵

誠信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誠信女子大學校 衣類學科 碩士

## The Effects of Compulsive Behavior related to Appearance on Body Image

Lee, Seung-Hee\* · Shim, Ji-Yoon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S.,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ich factors among addiction buying behavior had been affected by body image. 235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As the results, generally the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among body image, diet addiction, binge eating, cosmetic surgery addiction, compulsive behavior and shoplift tendencies. Multiple regression results revealed that diet addiction, cosmetic surgery addiction, binge eating accounted for 34.8% of the explained variance in weight obsession. Also,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cosmetic surgery addiction, self-esteem, and diet addiction, and cosmetic surgery obsession accounted for 20.4% of the explained variance in appearance orientation. Finally, regression results pointed out that self-esteem and diet obsession accounted 22.3% of the explained variance in appearance evaluation. Based on these results, fashion marketing strategies would be suggested.

**Key Words** : body image (바디이미지), compulsive behavior (강박행동), cosmetic surgery addiction (성형중독), binge eating (폭식행동), diet addiction(다이어트집착)

## 1. 서론

현대 사회는 이미지 시대라 할 만큼, 개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주가 되는 바디이미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소비자들의 신체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신체적 외모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신체적 매력성 향상, 바디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모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외모가 자아만족을 위해서는 물론 개인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외모 중요성의 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할 뿐 아니라 과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의복에 신경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을 하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는데 높은 관심을 갖게 되고 취약한 신체부위를 성형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신체적인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매스컴의 영향이 확대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sup>1)</sup>.

이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바디이미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마른 체형과 서구형의 얼굴을 선호하는 최근에 와서는 마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심각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만족스러운 외모를 위해서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을 성형하기도 한다. 다이어트는 여성들 사이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최근에는 10명 중 6명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sup>2)</sup>. 이런 추세는 정도를 넘어서서 심각한 다이어트를 해서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오거나<sup>3)</sup> 그 심각한 부작용으로 과도하게 식사량을 제한하다가 오히려 식욕의 증가를 일으키면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sup>4)</sup>. 또한

성형 수술의 경우 그전에는 관리대상이 되지 않았던 몸의 부위를 성형한다거나 성과 연령을 초월하여 성형수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성형전문 포털사이트 미미(www.mimi.co.kr)의 조사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7명은 성형중독 증세를 보였다<sup>6)</sup>.

이렇듯,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정도가 지나친 행동들이 행해지고 있다. 외모를 꾸미는 행동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바디이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바디이미지는 폭식, 다이어트 집착, 성형집착 등 외모 강박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강박행동을 다이어트중독과 폭식행동, 성형수술, 강박구매 등 외모관련 강박행동이 바디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규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바디이미지

Thompson(1990)<sup>8)</sup>은 바디이미지란 우리의 신체적 자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Cash at al.(1986)<sup>9)</sup>은 바디이미지는 육체적 외모와 신체적 경험의 주관적인 묘사로 형성되고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되며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Cash(1990)<sup>10)</sup>에 의하면, 바디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그것과 연관된 느낌과 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바디이미지에는 정서적, 평가적, 행위적인 측면이 모두 평가된다고 하였다. 즉, 바디이미지란 주관적이며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Cash(1990)<sup>12)</sup>는 바디이미지의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디이미지는 다차원적인데, 그 개념구조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태도적인 부분은 감정적, 인지적/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디이미지 변화 또한 감정적인 신체 변화와 자기 수용적이고 인지적, 행동적인 측면의 바디이미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바디이미지에 대해 자각하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바디이미지를 고수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바디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바디이미지는 우리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여성이 좀 더 신체적 느낌 및 변화에 민감하다. 여성이 바디이미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서구화와 매스미디어의 발전의 영향으로 길고 마른 모델 체형을 선호하면서 심각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요즘처럼 취업이 심각하게 어려운상황에서는 외모가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거나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서 심각한 외모중심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바디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데, 매력적인 광고 모델이 신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신체를 꾸며주는 의복이나 보석, 화장, 향수 등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변화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려 한다. 그 예로서, 우리나라의 미인상이 과거에는 다소 뚱뚱한 체형의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넷째, 바디이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시키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자기 확신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바디이미지에 대한 자각은 자

신감을 불어넣어 주거나 혹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Thompson(1990)<sup>9)</sup>은 바디이미지 형성과정을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 지각적인 부분으로 이것은 바디이미지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 정도를 말한다. 둘째, 주관적인 부분으로 만족, 관심, 인식, 열망, 불안 등과 같은 태도적 측면들을 가리키는데, 주관적인 부분은 감정적,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 태도적 바디이미지의 집합체를 이룬다. 셋째, 행동적인 부분으로 의복이나 화장, 체중조절행동, 바디빌딩, 성형수술과 같은 신체 변형경험과 함께 섭식행동과 같은 회피행동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바디이미지의 행동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바디이미지에 동반하는 폭식행동 및 체중조절행동과 미용성형수술과 더불어 강박소비성향과 절도성향에 바디이미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외모 관련 강박 행동

### 1) 다이어트 중독과 폭식행동

신체를 변화시키는 행동 가운데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를 들 수 있다. French et al.(1995)<sup>12)</sup>은 다이어트를 체중감소를 위하여 자신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Higgins et al. (1985)<sup>13)</sup>는 다이어트 행동은 실제적 자신의 모습과 타인에게 보여 지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의 불일치와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Labat and Delong(1990)<sup>14)</sup>은 여성들이 자신에 대해 불만감을 갖는 중요한 요인은 그 시기에 유행하는 의복, 즉 당시의 이상형과 표준형을 반영하는 스타일의 의복이 자신의 몸에 잘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의복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돌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현재 유행하는 의복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현

대 사회에서는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다이어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이어트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 있는 것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여 지는 여성의 이미지는 마른 체형이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이미지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한미정(2000)<sup>15)</sup>에 의하면 최근의 외모중시 경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분위기 가운데 지나치게 마른 몸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강조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의 지나친 다이어트나 운동이 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나친 다이어트에서 기인한 섭식장애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건강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는 불임, 골다공증, 사회 부적응 증 등의 심각한 사회 이슈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Mallick(1983)<sup>16)</sup>에 의하면, 무리한 체중의 변화는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경미하게는 불안, 수면장애, 집중장애, 불안, 피로 등과 불규칙한 생리, 무월경, 케토시스, 성장지연, 성숙의 지연 등이 일어나기 쉽다고 보고하였다.

심각한 다이어트와 함께 문제시 되는 것은 폭식행동을 들 수 있다. 우리는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폭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APA(1994)<sup>17)</sup>에 의하면, 정확한 의미의 폭식은 일정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이 동일 상황에서 먹는 양보다 확실히 많은 양을 먹고, 먹는 동안에 자제력에 대한 상실감(먹는 것을 멈출 수 없거나,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조절할 수 없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김남재와 한진화(2002)<sup>3)</sup>는 폭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생리적 특징과 신체적 특징, 심리적 특징, 행동적 특징으로 크게 나누어서 구분하였는데, 첫째, 생리적 특징은 대부분의 폭식은 다이어트로 인해서 오랫동안 음식을 자제했을 경우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폭식 행동의 신체적 특징의 경우 갑작스러운 체중변화를 들 수 있으며, 기초 대사 량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체중조절이 더 어려워진다. 셋째, 심

리적 특징으로는 신체만족감, 낮은 자아 존중 감, 우울, 스트레스 등과 같은 감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특징은 비밀스러운 식사행동 및 체중 조절을 위한 지나친 운동이나 단식, 음식절제, 다이어트 약품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다이어트와 폭식 행동 모두 지나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 2) 미용성형수술

성형수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의학 분야의 하나이고, 1차,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점차 현대의학의 한 분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형 수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에는 성형의 목적이 불편한 부분을 고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외모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성형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바디이미지와 성형수술에 대한 한·미 여대생들의 차이를 비교한 Lee and Rudd(1999)<sup>18)</sup>에 의하면 한국 여대생들이 미국여대생보다 바디이미지가 낮으며, 낮은 바디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 관리가 일종의 자아구성 활동으로 강조되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점검하고 일상적으로 몸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부탁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유는 몸 관리를 조장하는 무수히 많은 신체 관리 산업들로부터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임인숙, 2002)<sup>5)</sup>. 즉, 사람들은 화장이나 옷,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그것들로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미용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를 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만족하려 하는 경향이 있

다. 정규한(1980)<sup>19)</sup>은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들 중 자기신체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아의 성장과정에서 부수되는 신체자아의 형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나 현실적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리적 기제가 자기 신체로 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Thompson et al.(1999)<sup>20)</sup>은 긍정적인 바디이미지는 건강한 자기개념, 자기 신뢰와 사회적 적응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낄수록 신체적 부분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자존심과 셀프 이미지의 개선, 전체적인 주체성의 재구성 등이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요즘에는, 미용성형의 도가 지나쳐서 성형중독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임인숙(2002)<sup>5)</sup>에 의하면 미용성형 산업은 다이어트 산업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특히 여성들에게 퍼붓고 있다고 한다. 이런 미용광고의 홍수와 함께 현대 사회가 아름다운 외모가 대접받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몸 관리 방식을 행하게 된다. 특히, 요즘처럼 취업하는데 있어서 외모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 시대에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고 외모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용 성형수술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에는 자신의 바디이미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도 자신의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강박구매

사회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신용카드와 할부구매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젊은 소비자들은 소비지향적인 과소비와 함께 비합리적인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

합리적인 강박구매행동은 ‘소비자행동의 어두운 측면이라 일컬으며 과소비, 폭식, 절도, 나아가서 개인적 파산 등 정상적인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박구매란 충동적으로 소비하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구매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강박구매자는 다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구매를 하거나 지나치게 구매를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Faber & O'Guinn, 1988)<sup>21)</sup>. 또한, Valence et al.(1988)<sup>22)</sup>은 강박구매를 '통제할 수 없는 구매 욕구로 심리적 긴장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며, 그 행위의 강박적 본질에 의한 좌절감과 함께 안도감을 수반 한다'고 하였다. 김영신(1995)<sup>23)</sup>은 강박적 구매행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얻는 만족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활동 자체 혹은 소비를 경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탈적인 구매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승희, 신초영(2004)<sup>24)</sup>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강박구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구매성향이 높을수록, 보상구매성향이 높을수록, 절도성향이 높을수록, 폭식성향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강박구매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정희(2004)<sup>25)</sup>의 연구에서 쇼핑가치 유형 또한 강박구매에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고 효용적 쇼핑 가치와 쾌락적 쇼핑 가치를 모두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의 강박구매 수준이 더 높다고 했다. 김정훈과 김현정(1996)<sup>26)</sup>에 의하면 강박구매 성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소비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비취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강박구매성향이 높았으며, 종교가 강박적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천주교인이 다른 종교를 가진 소비자들보다 강박 구매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신(1995)<sup>24)</sup>의 연구에서는 강박 구매 행동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나타나는 강한 구매욕이 극단화된 현상으로, 이러한 행동은 비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질주의와 어릴 때의 소비 경험은 강

박적 구매성향과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디이미지는 다이어트집착, 폭식행동, 미용성형태도 그리고 강박구매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자료 35부를 제외한 총 215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응답한 여대생 215명의 나이는 평균 21.3세였다. 전공의 경우 이학계열이 54명(25.1%)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24.2%), 인문계열(23.3%) 순이었다. 월 평균 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67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하가 38명(17.7%),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하가 36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설문지는 바디이미지, 자아존중감, 성형중독정도, 다이어트중독정도, 폭식행동, 강박구매행동, 절도성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바디이미지와 폭식행동은 Cash(1990)<sup>10)</sup>의 연구, 강박구매성향은 Faber & O'Guinn(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7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형태도에 관한 문항은 전경란, 이명희(2002)<sup>29)</sup>의 연구를 토대로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sup>30)</sup>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Multiple Regression,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요인분석결과

##### 1) 바디이미지 요인

바디이미지에 관한 문항을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식과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68.06%였다<표 1>. 요인1은 2개의 문항으로 묶였으며, 이 요인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bh' $\alpha$  값은 0.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고유값은 4.39, 설명력은 32.61%로 “몸무게집착”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2는 12개의 문항으로 묶였으며, Cronbabh' $\alpha$  값은 0.90, 고유값은 3.12, 설명력은 21.56%로 “외모지향성”이라 명명하였고, 요인3은 2개의 문항으로 묶였으며, Cronbabh' $\alpha$  값은 0.88, 고유값은 1.98, 설명력은 13.89%로 “외모평가”이라 명명하였다.

##### 2) 다이어트 중독 요인

다이어트에 관한 문항을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식과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66.47%였다. 각 요인에 따른 해당문항은 <표 2>와 같다. 요인1은 7개의 문항으로 묶였으며, 이 요인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bh' $\alpha$  값은 0.89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고유값은 4.37, 설명력은 33.62%로 “다이어트집착”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2는 4개의 문항으로 묶였으며, Cronbabh' $\alpha$  값은 0.78, 고유값은 2.65, 설명력은 20.38%로 “다이어트중독”이라 명명하였고, 요인3은 2개의 문항으로 묶였으며, Cronbabh' $\alpha$  값은 0.63, 고유값은 1.62, 설명력은 12.47%로 “체형의식”이라 명명하였다.

<표 1> 바디이미지 요인

요인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 분산(%)	신뢰도 (α)
몸무게 집착	나는 뚱뚱하거나 뚱뚱해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을 쓴다.	.92	4.39	32.61	.91
	나는 내 체중의 아주 작은 변화도 잘 알고 있다.	.88			
외모 지향성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나는 항상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93	3.12	21.56	.90
	내 자신이 최고로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의류를 구입할 때 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91			
	나는 수시로 거울 앞에서 내 외모를 확인한다.	.87			
	나는 외출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85			
	내가 항상 멋있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84			
	나는 외모를 꾸미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사용한다.	.82			
	나는 마음에 들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면 신경이 쓰인다.	.78			
	나는 주로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옷을 입는다.	.76			
	나는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쓰지 않는다.	.75			
	나는 머리 손질에 특별히 신경쓴다.	.72			
	나는 내 외모에 대해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69			
나는 항상 나의 신체적인 외모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68				
외모 평가	나의 외모는 이성에게 호감을 준다.	.90	1.98	13.89	.88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89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좋아한다.	.87			
	나는 옷차림과 관계없이 보여지는 내 모습을 좋아한다.	.85			
	나는 내 옷이 몸에 딱 맞는 것을 좋아한다.	.84			
	나는 내 체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81			
나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78				

<표 2> 다이어트 중독요인

요인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 분산(%)	신뢰도 (α)
다이어트 집착	나는 종종 뚱뚱하다고 느낀다.	.91	4.37	33.62	.89
	나는 더 날씬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87			
	나는 체중감소를 위하여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다.	.81			
	나는 내 체형이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걱정된다.	.80			
	나는 내게 잘 맞던 옷이 작아지면 내가 뚱뚱하다고 느낀다.	.78			
	나는 내 체중에 대해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58			
	나는 특히 내 체형을 의식하게 만드는 옷을 피하려고 한다.	.54			

<표 2> 계속

요인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 분산(%)	신뢰도 ( $\alpha$ )
다이어트 중독	나는 체중감소를 위하여 설사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	.86	2.65	20.38	.78
	나는 체중감소를 위해서 구토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	.84			
	나는 체중감소를 위해 흡연한 적이 있다.	.83			
	내 체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 집중이 안된다.	.58			
체형의식	나는 내 자신이 살찐다고 느낀다.	.84	1.62	12.47	.63
	나는 내 체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83			

<표 3> 성형중독 요인

요인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 분산(%)	신뢰도 ( $\alpha$ )
성형의향	나는 성형수술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진다.	.89	3.45	43.18	.93
	나는 성형수술 받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89			
	나는 앞으로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싶다.	.81			
	나는 미용성형 수술 후 결과가 매우 좋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76			
성형기대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미용수술을 받기를 원한다.	.79	2.53	31.64	.83
	나는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또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	.77			
	나는 성형수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1			
	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	.60			

3) 성형중독 요인

성형중독에 관한 문항을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식과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4.82%였다. 각 요인에 따른 해당문항은 <표 3>과 같으며, 요인1은 4개의 문항으로 묶였으며, 이 요인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kh' $\alpha$  값은 0.9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값은 3.45, 설명력은 43.18%로 “성형의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2는 4개의 문항으로 묶였으며, Cronbakh' $\alpha$  값은 0.8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53, 설명력은 31.64%로 “성형기대”라고 명명하였다.

2. 바디이미지, 자아 존중감, 폭식행동, 다이어트, 성형중독, 강박구매와의 상관관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바디이미지와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진 다이어트, 두 가지 요인의



로 나누어진 성형중독, 그리고 자아 존중감, 폭식 행동, 강박구매성향, 절도성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바디이미지 요인 중 몸무게집착 요인은 외모지향성, 외모평가, 절도성향, 다이어트집착, 다이어트 중독, 성형의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외모지향성은 자아 존중감, 절도성향, 다이어트집착, 다이어트중독, 성형기대, 성형의향, 강박구매요인과, 외모평가요인은 자아 존중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 자아 존중감은 절도성향, 다이어트 중독, 성형기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폭식행동은 절도성향, 다이어트 집착, 성형기대, 강박구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체형의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절도성향은 다이어트 집착, 다이어트 중독의 두 가지 다이어트 요인과 성형기대,

성형의향, 강박구매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다이어트 집착은 체형의식, 성형기대, 성형의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다이어트 중독은 성형기대, 성형의향, 강박구매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형기대와 성형의향 요인은 모두 강박구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3. 강박행동에 따른 몸무게 집착

강박행동에 따른 몸무게 집착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5>와 같으며, 이것은 34.8%의 설명력을 가진다. 강박행동 중 다이어트 집착과 성형중독은 몸무게 집착에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폭식행동과 몸무게 집착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바디이미지, 자아 존중감, 폭식행동, 다이어트중독, 성형중독, 강박구매와의 상관관계

	몸무게 집착	외모 지향성	외모 평가	자아 존중감	폭식 행동	다이어 트집착	다이어 트중독	체형 의식	성형 기대	성형 의향	강박 구매
몸무게 집착	1	.526**	.178**	-.030	.028	.565**	.318**	.036	.131	.207**	.042
외모 지향성		1	.460**	.480**	-.045	.203**	.217**	.175*	.274**	.324**	.145*
외모평가			1	.461**	-.011	-.114	-.060	.119	-.039	.027	.074
자아 존중감				1	.082	-.144*	-.294**	.194**	-.145*	-.037	-.079
폭식행동					1	.270**	.064	-.139*	.143*	.103	.356**
다이어트 집착						1	.384**	.136*	.136*	.163*	.121
다이어트 중독							1	.022	.436**	.251**	.350*
체형의식								1	.107	.090	.050
성형기대									1	.724**	.424**
성형의향										1	.317**
강박구매											1

<표 5> 강박행동에 따른 몸무게 집착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	R <sup>2</sup>	F
몸무게 집착	다이어트 집착	.572	9.646	.348	.000***
	성형중독	.158	2.772		.006***
	폭식행동	-.129	-2.201		.029*

\*  $P < .05$ , \*\*\*  $P < .001$

4. 강박행동에 따른 외모지향성

강박행동에 따른 외모지향성 요인을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는 20.4%의 설명력을 가진다. 외모지향성에는 4가지 요인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그 중 성형의향과 자아 존중감이 외모지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이어트 중독과 성형중독 성향은 외모 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강박행동에 따른 외모평가

강박행동에 따른 외모평가 요인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22.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외모평가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박행동 중 다이어트집착이 유일하게 외모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강박행동에 따른 외모지향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	R <sup>2</sup>	F
외모 지향성	성형의향	.282	4.352	.204	.000***
	자아 존중감	.272	4.145		.000***
	다이어트 중독	.180	2.555		.011*
	성형중독	.150	2.185		.030*

\*  $P < .05$ , \*\*\*  $P < .001$

<표 7> 강박행동에 따른 외모평가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	R <sup>2</sup>	F
외모평가	자아 존중감	.489	7.811	.223	.000***
	다이어트집착	.154	2.455		.015*

\*  $P < .05$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바디이미지에 따른 다이어트, 폭식행동, 성형중독, 강박구매성향의 영향을 알아보 고자, 20대 이상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이어트와 성형중독에 따른 변인들을 요 인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집 착, 다이어트 중독, 체형의식으로 분류되었고, 성 형태도는 성형의향, 성형기대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바디이미지 요인이 강박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몸무게 집착 요인은 다이어트 집 착, 성형중독, 폭식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외모지 향성 요인은 자아 존중감, 성형중독, 다이어트 중 독, 성형의향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외모평 가 요인은 자아 존중감, 다이어트집착과 긍정적 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강박행동과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다이어트 중독, 성형중독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넷째, 절도성향, 다이어트, 성형중독, 강박구매 의 강박행동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 해보고자 한다.

첫째, 바디이미지 요인은 모두 강박행동에 영 향을 주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이어트, 성형 중독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디이미지에 집착하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록 강박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으며, 특히 바디이미지가 중요시 되고 있 는 현대사회에서는 강박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 점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강박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디이미지에 대한 사고 개선과 자신을 존중하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와 사회 전반적인 외모중심적인 사고를 고쳐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다이어트 성형중독, 강박구매라는 강박행

동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한 가지 강박행동은 또 다른 연쇄적인 강박행동을 낳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 며, 복합적인 강박행동을 보이기 이전에 이를 방 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여 대생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타겟으로 조사한 것이 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 와서는 남성 도 화장과 성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행 동으로 옮기는 남성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여성과의 비교연구 가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 1) 양계민 (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 2) "10명 중 6명, 현재 다이어트 중"(2004. 8. 12.) *데이터 뉴스*. 자료검색일 2004. 12. 15  
자료출처: www.naver.com
- 3) 김남재, 한진화(2002). "폭식 행동과 체중조 절에 관한 개관 연구". *학생생활연구*. 1-23.
- 4) Polivy. J. & Herman. C. P. (1993). "Dieting and binding : A casual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0, 193-201.
- 5) 임인숙 (2002).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 사 회학*. 35(3), 183-204.
- 6) "성형중독, 그 위험한 유혹"(2004. 12. 10). *뉴스메이커*. 자료검색일 2004. 12. 15. 자료 출처: www.naver.com
- 7) "미모는 권력 성형 권하는 사회"(2004. 12. 10). *뉴스메이커*. 자료검색일 2004. 12. 15. 자료출처: www.naver.com
- 8) Thompson. J. K. (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 9) Cash. T. F., Winstead, B., & Janda, L.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20(4), 30-37.
- 10)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Thompson, J. K.)*, Pergamon press.
- 11) Irving. L. (1990). "Mirror Image: Effects of the standard of beauty on the self-and body esteem of women exhibiting varying levels of bulimic symptoms". *Journal of Social Clinical Psychology*, 2, 230-242.
- 12) French. S. A., Story. M., Downes. B., Resnick. M. D. & Blum. R. W. (1995) "Frequent dieting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health behavior correl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 695-701.
- 13)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14) Labat, A. L., & Delong, M. L.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15) 한미정 (2000). "신체이미지 관련 TV메시지의 처리방식이 여대생의 신체만족감과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14(3), 291-317.
- 16) Mallick. M. H. (1983). "Health hazards of obesity and weight control in childre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3, 78-82.
- 17)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4.
- 18) Lee. S. H. & Rudd. N. A. (1999). "Beneath the Skin: A Cultural Comparison of Cosmetic Surgery and Body Image among Korean and American Femal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2(1), 21-29.
- 19) 정규한 (1980). "성형외과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 33-39.
- 20) Thompson. J. K., Heinberg L. J., Albert M. & Tantleff-Dunns. (1999). "Exacting beauty :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4.
- 21) Faber. R. J. & O'Guinn. T. C. (1988). "Compulsive consumption and credit abuse". *Journal of Consumer Policy*, 11, 97-109.
- 22) Valance. G. A. & Fortier. (1988). "Compulsive buying : Concept and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policy*, 11. 419-433.
- 23) 김영신 (1995). "소비자 사회화 관점에서 본 청소년들의 강박적 구매성향". *총남생활과학 연구지*, 8(1), 40-58.
- 24) 이승희, 신초영(2004). "패션 제품 강박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연구". *한국유통학회지*, 28(5), 658-667.
- 25) 서정희 (2004). "중·고등·대학생 소비자의 쇼핑가치 유형과 강박구매 : 서울과 울산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15(2).
- 26) 김정훈, 김현정(1996). "익산시 남녀 소비자의 강박적 구매 성향과 인구 통계적 변인의 영향". *원광대학교논문*, 32(2), 537-554.
- 27) Wilkes, Robert E(1978). "Fraudulent behavior by consumers". *Journal of Marketing*, 42, 67-75,
- 28) 전경란, 이명희(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

- 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6), 71-83.
- 29) 고애란, 심정은(1997).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신체태도 및 체중 조절 행동의 영향 연구".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1, 15-29.
- 30) Rosenberg(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2006년 2월 13일 접수, 2006년 4월 18일 채택)